

# 생명과의 상생을 노래해

이호신 작가, 12월 1일까지 백승갤러리서 개인전



이호신 작가 작 '상생의 노래'

생명을 뜻하는 한자 '생'은 본디 풀과 나무가 땅 위로 나오는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다. '생' 속에는 낱고 기르고 키우고 가꾸고 늘리는 온갖 생명체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호신 작가가 그린 상생의 노래 속에는 가지 하나 하나, 나무 하나 하나가 '생'으로 다가온다.

서울 한복판에서 지리산의 자연과 그 속의 수많은 생명들의 움직임이 현대인들의 가슴 속에 파고든다. 무한경쟁의 쳇바퀴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조화와 공존의 삶을 전하는 자리가 열린다.

수년간 지리산 권역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화폭에 담은 이호신 작가는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백승갤러리 기획전을 통해 자연의 섭리를 작품으로 형상화한 작품 30점을 선보인다.

이호신 작가는 2010년 산청 남사에담초으로 거처를 옮긴 뒤 지리산 자락을 누볐다. 지리산의 수많은 봉우리와 계곡을 살피며 그 속의 생명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그려왔다. 그의 그림에서는 현대, 조형이라는 자극적인 색채보다는 제철을 맞은 취나물과 같은 풋풋하고 싱그러움 색깔이 선명하다. 이는 기능적이고 기교적인 운영의 결과가 아닌 자연에 대한 우려로 나오는 그의 심경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무심한 듯 빠르게 그려 나가는 이호신 작가의 필치는 분방하고 거침이 없다.

이와 함께 이호신 작가는 이 전시의 작품들을 통해 자연환경의 중요성과 생태계의 과정을 제시한다. 모든 생명은 꽃피우기를 원하지만 그 꽃이 지고서야 결실을 얻는다는 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계절 중 늦가을과 초겨울의 소재를 택했으며 감과 고구마, 밤과 수수 등을 통해 한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이번 작품에 대해 이주현 미술평론가는 "그의 그림에서 해후의 기쁨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 이해에 눈이 어두와 자연과 어머니의 품을 대할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초충도나 화조도, 십장생도 등을 반복했다면 이러한 충일감을 얻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진실된 관찰 속에 담긴 작품이기에 작품 속 풀잎 하나, 곤충 한 마리가 불수룩 새롭게 느껴진다"고 평했다. (02)730-5824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 3인3색 서양화풍 작품에 투영된 불교적 심상

### 강동권 정물화 속 생명 표현 성수희 '미'에 대한 새 개념 제시 판대식 한계를 넘는 노력 담아

신진 화가들의 작품속에 담긴 불교적 심상이 눈길을 끈다. 강동권 작가는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 '행복/느낌'을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한다. 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꽃을 소재로 한 정물화 30여 점을 출품한다.

강 작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과 행복을 캔버스 속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의 꽃'으로 표현한다. 꽃이 만개한 순간을 포착해, 꽃의 생명과 생의 기쁨, 그리고 생노사의 고뇌를 나타낸다.

30여 점의 회화 작품을 통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꽃을 보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 믿는 강 작가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다. 작품 '행복한 정물' '장미가족' '연' 등에서 보여지는 만개한 꽃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꽃이 되기도 하고, 피지 못하고 저버려 아쉬움 그리움의 꽃이 되기도 한다.

강 작가는 "작품 속 꽃을 보는 이들이 순관과 영원, 피고 짐의 의미를 음미하는 시간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전시전을



강동권 작 '장미가족'

준비했다. 스스로 위안받고 삶의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개인전 5회, 단체전 약 40회에 참여했으며 2012년 광주우우예술상을 수상했다.

성수희 작가는 '비의 선물'을 주제로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종로 와룡동 갤러리 일호에서 전시회를 연다. 성수희 작가는 모래를 활용한 질감이 도드라지는 작품을 구현해왔다. 2002년 첫 개인전 '달의 선물(The gift of moon)' '선물 시리즈'와 마티에르(matiere) 위에 드로잉과 페인팅을 해 작품을 선보인 성수희 화가의 그림은 섬세하고 풍부한 감성이 묻어나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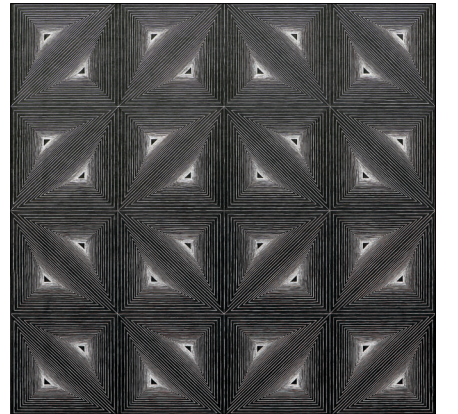


성수희 작 '이미 아름다운 그녀에게'

이번 전시회는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낙약한 존재들에 대해 위로의 선물을 전달하고자 따뜻한 색채와 부드러운 질감으로 작품을 구성했다. 이 중 작품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그녀에게'는 아름다움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려는 현대의 사람들에게 성찰의 시간을 준다.

또 작품 'its raining chocolate'는 우수에 찬 얼굴 위로 달콤한 초콜릿을 선물하듯 그려 넣었다. 여리고 순수해 보이는 소녀의 눈망울은 보듬고 위로해주고 싶은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따뜻한 감성을 가진 작가의 눈빛과 닮아 있다.

성수희 작가의 소녀적 감성은 기억 저편에서 그집어낸 일상을 캔버스 위에서 예술



판대식 작 '한지에 연필'

로 탄생되며, 위로 받고 싶은 자신을 이야기 한 역설적 표현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신진작가 판대식 작가는 11월 24일 스페이스+에서 'Engrave'전을 연다. 판대식 작가의 작품은 검은 화면 위에 흰선의 배열을 통한 움직임을 표현한다. 직선의 배치가 곡선으로 변하며 보이는 불균형은 현재의 한계를 넘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판 작가는 "작업의 행태는 내 삶과 닮아 있다"며 "작품을 완성하고 불쾌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들만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모이고 공간속에서 유기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보며 또 다른 삶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파키스탄관광청, 2016년 간다라 주간 연다

간다라는 대승불교와 불교미술의 발상지이자 불교성지 중 하나인 곳이다. 한국의 불교문화가 직간접적으로 간다라에서 영향을 받았음에도 그동안 간다라지역에 대한 연구나 순례 등은 드물었다.

이번 상황에서 파키스탄 관광청과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이 11월 9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6년 3월 한국의 불자와 언론인들을 초청해 2016 파키스탄 간다라 주간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간다라는 동서양의 각기 다른 문화와 종교, 민족, 언어가 서로 융합된 세계화와 퓨전문화의 원형이기도 하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9·11사태 이후 테러로 인해 외국 관광객이 거의 끊겨 관광산업이 빈사상태에 빠졌다.

파키스탄 관광청은 먼저 간다라를 성지 순례지로 홍보하기 위해 대승불교 국가인 한국과 중국 일본을 상대로 적극적인 관광 홍보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만해 스님의 심우장 산시 재조명

경기 광주 만해기념관은 12월 31일까지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심우장 산시 특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과 함께 말년에 심우장에서 쓴 '심우장 산시' 등에 대한 시화작품이 전시된다.

광주 만해기념관 측은 "만해 스님이 남긴 시는 독립운동을 비롯한 민족문화의 상징이었다"며 "스님이 시를 통해 전한 시대 정신을 조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기

노덕현 기자

념관 측은 "심우장에서 내면의 성찰을 시어로 표현한 만해 스님의 문화세계를 탐구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한다"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만해기념관은 1981년 10월 만해 스님(1879~1944)의 나라사랑과 문화사상 등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됐

다. 기념관은 만해스님의 일생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상설종합전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031)744-3100 노덕현 기자

## "문화재 조각가 창작물 한자리에"

한국문화재기능인협, '대한민국전통문화재조각대전'... 23일까지

문화재조각 기능인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조각분과(회장 류수관)는 11월 16일~23일 부산 을숙도 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불교미술 조각, 전통문화재 조각, 서각,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전통 문화재 조각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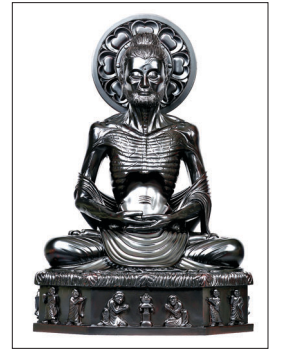
'제14회 대한민국전통문화재조각대전'이란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문화재조각기능인들의 문화재보수 복원 작업의 경험을 창작 작품으로 승화한 작품 50여점이 선을 보인다.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기능 인재 양성 및 한국문화 홍보를 전시 목적으로 두고 있다.

류수관 회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조각인들은 분발과 도약의 계기가 되며 일반인들에게는 우리 전통 불교문화를 알리는 교양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전했다.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조각분과는 1986년에 창립됐다. 정기 전시회와 성지 순례 및 문화재 답사, '불사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는 아름다운 이란 제목의 세미나도 개최하며 전통문화 보존에 앞장서



박원용 작가의 '염원'



정규복 작가의 '고행상'

왔다. 현재 주요무형문화재 박찬수, 이재순 및 무형문화재 이진형, 박찬봉, 하명석, 한봉석, 임성안 외 회원 92명이 활동하고 있다. (051)972-8510 하성미 기자

###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 출발 확정 상품

인도 11일	요금문의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8일	요금문의	(지장도량/관음도량) 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요금문의
미얀마 6일	요금문의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 미얀마 - 중국 성지순례

한시출발

선불 선량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벤티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향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향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둥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웨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살라-쿠시나गर-룸비나-스라바스티-산키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블라-시그리야-플로나루와-일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원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시그리야-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블라-시그리야-플로나루와-미탈레-캔디-콜롬보-뭉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살라-쿠시나गर-스라바스티-룸비나-카트만두-나기르코트

### 티베트/부탄

티베트 6일  
성도-라싸-양드록추-간체-시가체

티베트 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정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피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니카-팀푸-피로-카투만두-나기르코트

동티베트 9일  
성도-문전-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아침스)-간딩-성도

### 마하연의 특별함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치)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펙 6일

###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